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銃後報國强調週間

一

支那事變은 長期戰에 入하야 國民의 銃後支援이 一層 重要性을 띄게되엿다. 即 帝國은 支那의 重要地帶를 占領하고 海岸線을 封鎖하얏다 할지라도 國民政府의 完全한 生命權을 掠하기에는 多少 時日이 걸릴것이며 滿洲事變에는 武力을 만히 쓰지 아니햇슬뿐아니라 當時 張政權의 財政的 遺産이 만허 滿洲國建設에 困難이 어섯스나 今番 支那軍은 所謂 焦土抗戰術下에 敗走하니 建設에 財政이 巨額으로 必要하며 國民黨이 비록 潰滅한다할지라도 國民黨과 合作한 共産黨은 코민테른의 後援下에 鞏固한 勢力을 가젓스며 日獨伊의 防共協定이 成立되엿다 할지라도 獨伊만을 依賴할 處地에 엇지 안라。 그러므로 時局을 眞正으로 認識하고 長期戰에 對處할 國民的 覺悟를 促함은 刻下의 急務니 來二十九日의 天長節을 中心으로 今二十六日부터 一週間 銃後報國强調週間을 制定한 것은 時宜에 適當한 일이다。

二

銃後報國强調는 單純한 宣傳만에 그치지 안는다。 實際로 效果잇는 宣傳、實行을 함을 主要任務로 삼나니 非常時 財政經濟에 對한 國民協力要綱中의 重要事項인 消費節約 및 貯蓄奬勵運動을 通하야 時局을 認識케 하므로써 適當하다고 認한다。 그러므로 時局上 消費節約을 할 重要物資는 二十種目 以上에 達하나 그中 民衆生活上 가장 重要한 關係를 가진 紙、木綿及 燃料의 三種類를 特히 節約貯蓄하도록 宣傳하는 同時에 非常時의 節約及貯蓄의 眞正한 意義를 徹底케하기로 되엇다 本社等新聞關係者 組織인 春秋會가 今日附及 五月一日附 新聞을 各各 八頁로 減頁할것은 어떠意味에서 나오것이다。

三

勿論 紙 木棉及 燃料의 節約及 貯蓄外에 다른 貯蓄과 節約이 必要치안타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必要하다고 다 節約 貯蓄하다하면 다 節約 貯蓄이 안되는 境遇가 만흐므로 以上 三種目을 標하야 特히 節約貯蓄을 效果잇게하고저 하는바 다。 그러므로 印刷物、包裝에 必要한 紙類、衣服用의 棉花、炊事用의 石炭、薪炭等을 各家庭에서 節約、貯蓄하는것은 勿論 其他用의 紙、棉花、燃料도 節約、貯蓄하야 銃後의 調達에 少許의 不足이 업서야할것이다。 棉花栽培의 增收、製紙의 生産擴張、石炭採掘의 擴張等에 節約、貯蓄과 同結果를 내는것은 말할것도 업다。

四

大藏當局은 年八十億圓의 貯蓄을 目標로한다고 宣言하엿다。 이것은 今年度一般豫算 約三十億圓과 軍事豫算 五十億圓을 標準으로한것이려니와 이것은 以上으로써 滿足하는 것이 아니다 貯蓄이 늘면 늘사록 國民的 生活이 安全함은 勿論、長期戰에 對應함에 鞏固하야감을 表示하나니 紙、木棉、燃料의 外에 一般의 勤儉、貯蓄이 絶對 必要하다。이 强調週間을 定한야、國民一般에 意識을 徹底케 하는 所以이다。

國府財政部長에 宋子文就任實現?

蔣介石과 孔祥熙懇請

【上海二十五日發同盟】香港來電에 依하면 宋子文側近者談이다 宋子文의 財政部長就任은 今週中으로 實現되리라고傳하고엿다 宋子文의 財政部長說은 約二個月前부터 喧傳되고 잇든바 아직 實現치못하고 오히려 方面에다는 航空委員會 副委員長에 就任하는等 全彼의 經歷手腕으로보아 奇異의 感을 懷抱케 하는바 今回宋의 財政部長說이 再發됨에 이르는것은 國民政府部內의 內紛及 財政困窮의 深化를 말하는 것으로 解釋되고잇다 即 宋子文은 日支事變勃發後 香港에 蟄居하야 國事를 離脫하여잇든바 蔣及 孔祥熙의 懇請에 依하야 겨우 出馬하야 航空委員會次席에 되엿다 其後에도 거의 香港에숨어잇서 漢口에는 잇다금 飛行機로 飛來하는 程度에끈치고잇서 積極的活動을하지안코 蔣及 國民政府와의 關係를 離脫하야 逃避하려는 눈치가 보이게되엿다 蔣介石은 國民政府의 財政이 마침내 急迫하야 孔祥熙의 手腕으로써는 거의 回復될 希望을 發見치못하고 今日 內外債十億以上의 發行을 決定한때임으로 財政的手腕이 卓越하야 外國으로부터 相當히 信用을어덧든 宋子文에게 逃避될 當햇서는 致命的痛擊을바 들것이 明瞭하므로 財政部長의 職을주어 于先 挽留시켜 어떤 局을 打開하려는것으로보인다 (寫眞은 宋子文)

招商局財産에關한 交通部聲明書發表

【上海二十五日發同盟】維新政府交通部는 米國적리암·헌트商會에對한 招商局財産一切讓渡問題에關하야 愼重히 그經緯를調査中이든바 右는維新政府成立當初의 聲明에違反함이 明確하므로 四月廿五日附로 左記聲明書를發表 契約無效를 明言하엿다

中華民國維新政府交通部는 三月二十八日附 外交部聲明書에 基하야 招商局이所有한碼頭、倉庫、船舶等一切財産에關한契約等의 締結은 그如何한目的을不問하고 交通部는 此를承認치안는다 또此에依하야 生하는義務도一切責任을 負치안는다

靖國神社大祭日 第一日御儀執行

【東京電話同盟】護國의 英靈四千五百餘柱가 새로 神鎭하옵시는 靖國神社臨時大祭 第一日의 曉는 前後의 招魂祭에 續하야 二十五日朝勅使御參向의 光榮에 빗나며 盛大히擧行되엿다 神靈鎭座하옵시는것가티 夜半으로부터 바리기始作한 비는 櫻의新綠에 보슬보슬 티러저 玉砂利하나를 깨끗이씻서 午前八時三十分 正裝에威儀를가춘 杉山陸相 米內海相 大角 臨時大祭委員長以下 合祀者係部隊代表者等 手水修拔로 몸을 깨끗이하고拜殿에參着 鈴木宮司祝詞를奏한다 午前九時 至嚴하옵신側으로부터 御差遣의 勅使掌典庭田重行伯爵 御幣物을奉하야 參向、陸海兩省臨時大祭委員長은拜殿階上의 緣側에 係官及 宮司는階段下에、勅使神殿에나 엿다 御幣物을 奉奠御祭文을 奏하고 鈴木宮司이를 拜受하야 內陣기괴收하고 勅使反問 하면 勅使는 屏風에 靜坐하야 玉串을奉奠하야 下御、陸海兩相臨時大祭委員長以下 參列諸員順次 玉串을 奉奠拜禮 遺族總代의 拜禮를 御差遣의 勅使를 奉送하다 了 다녀어 祭神의 遺族은 感激의 눈물에 새로워 只今護國의 英靈이된 그옷 그子 그夫를 府를拜觀 二十七、二十八兩日에 亘하야 約九千名의 遺家族에 對하야 新宿御苑의 拜觀을 差許된다

顯忠府、新宿御苑에 拜觀差許

【東京電話同盟】明治神社臨時大祭에 參列한 四千五百餘柱의 英靈의 遺族에게하야 傳 許하옵시게도 顯忠府의拜觀을 差許하옵시는바 御苑에가 게옵서어二十五日午後一時로 부터 遺族約七百名은 數班에 區分되어 隊列하야 坂下門으로부터參入 滿洲上海兩事件 記念品이 納置되어잇는 顯忠府를拜觀 漸次半藏門으로부 터退出하엿다 同府拜觀은今 日로부터 四日間差許되는바 二十七、二十八兩日에亘하야 約九千名의 遺家族에對하야 新宿御苑의 拜觀을 差許된다 로보쇼 終日參觀되엇다

銃後報國强調週間 ❶

時局再認識論

國民精神弛緩은 禁物

一、國民에 弛緩은 업는가

聖戰十個月 皇軍의 奮鬪에 依하야 戰果가 크게 擴大하야 바야흐로 隴海線의 遮斷에 依하야 北支、中支兩派遣軍의 連絡이 達成되려하고 東은 津浦線、北은 黃河를 끼고 武漢을 中心으로하는 蔣政權의 第二戰線을 衝擊、或은 壓迫하야 이에 對하야 敵은 六全會에서 如何間 國共兩黨의 內部軋轢을 彌縫하고 直屬軍을 主로하는 四五十萬의 精銳로써 正面을 支持하는 同時에 共産軍、雜軍等을 驅使하야 我後方攪亂의 게릴라戰을 策하야 長期持久戰은 어제부터라는 態勢를 示하게되엇다 여기에 對하야 皇軍이 곳 敵의 挑文에 應하야 一擧로 戰線을 前進할가 或은 一段 占據地域의 殘敵과 兵匪를 掃蕩하야 新政權育成의 途를 열고 그런後 攻擊에 移할가 어느 것은 吾人의 곳 窺知할수업는바이나 戰爭이 이로부터 나온것이 아니고 蔣政權을 屈服하기까지 長期戰을 遂行할것만은 今年 一月十六日의 我政府聲明에 徵하지 안트라도 明白하다 即 支那事變은 드디어 第二段階에 移行하엿다 銃後國民스스로새로운 覺悟가 업슬수업는 時期로되엿다

그런데 此重大한 時期에 臨하야 我等銃後國民間에 웬일인지 緊張의 反動으로서의 弛緩狀態가 發生하지는 안흣는가 北은 皇軍이 京津의 地를 攻略하야 津浦、京漢、京綏의 各線을 進行하야 山西에 侵入하는때 南은 上陸軍이 大場鎭을 攻落하는때까지 國民은 손에 땀을 쥐고 緊張하얏스나 要都城이 接踵陷落된때부터 웬일인지 氣分이 安栗케되어 事變도 이미 絶頂을 넘엇다 하는듯한 見解、考慮가 大衆間에 퍼지게되엇슴은 다툴수업는 事實인듯하다 此弛緩狀態의 發生에 對하야 識者方面에서는 다음과 가튼 原因、理由를 들수잇다

一、皇軍이 너무 强하야 破竹의 勢를 보인것(苦戰、難戰의 報道도 屢屢 傳하얏스나 차우면 반드시 여기고 얼마안되어 最後의 勝利가 齎來되리라는 豫測이 一致하엿다)

一、一時 念願된 英米蘇等의 對支援助가 其後 漸次 微弱하게되고 列國의 對日輿論도 沈靜에 歸하고엇다는것(卽 支那만이면 걱정업다는 樂觀의 發生)

一、我國力의 實際가 闡明되어 安心을 與하는同時에 支那側의 經濟的苦境이 連續的으로 暴露되어 長期戰도 不可能하다고 생각되게된것

一、國民의 一部의 『弱한 支那를 너무 壓迫함은 불상하다』는 것과가튼 一種의 센치멘타리즘이 잇는것(卽 聖戰의 眞理由目的에 對하야 認識을 缺하엿다)

一、戰爭에 依한 非常한 緊張의 反面에는 頹廢、享樂의 氣風이 瀰漫하기쉬운것(佛蘭西革命動亂中 一部巴里市民은 密室內에서 醜態한 享樂에 沈耽하엿다)

一、熱하기쉽고 冷하기쉬운國民性—卽 滿洲事變以後 너무 頻繁히 非常事態에 遭遇하야 大事件에 對한 感覺이 痲痺된것。

等等이다 모두 相當한 根據를 가진 理由라고 생각되는데 此等은 決코 日本國民만이 갓는 缺陷이 아니고 모든 人間이 가진 缺陷이지 안흣다 萬若 日本軍이 何處에서 敗北하엿다든가 或은 國民生活에 悲慘한 經濟에 빠졋다든가 又는 第三國이 손을 써서다는 現象이 생겻다면 더 머리를 차리고 勝報는 오로 차우면 國內經濟는 好況을 보이고잇는즉 氣分上으로 弛緩이 생기는것도 理由가업다고는 볼수업다

그러나 如斯한 國民間의 氣分弛緩은 어대로 放任하야 長期戰에 對함은 勿論 危險하다 『達人은 外物을 물한다』고하는데 眞實한 國民은 反省深慮로써 內外表裏의 情勢를 洞察하야써 將來에 對處할 用意가 업서서는 안된다 支那事變을 軍純히 戰線의 勝敗로만보려는것은 重大한 誤謬이다 心眼을 크게 뜨지 안흐면 他日에 後悔를 남기게될 것이다

國民精神總動員으로써 時局을 再認識하야 銃後의 心理를 고치 가장必要가잇다

熱狂的歡迎裡

伊使節團新京에到着

【新京二十五日發同盟】伊太利파시스트黨親善使節團 파우로치首席使節以下一行二十二名은 廿五日午後三時廿分滿鐵特別列車로 新京驛着 滿洲國朝野의 熱狂的歡迎裡에 國都에歷史的第一步를 印하게되엿는데 國都新京은 이미 廿四日 어느事國의 歡迎陣의 準備萬端을終了하야 『벤·베누타』라고 滿伊兩國語로 裝飾한 滿洲國三千萬民衆의 熱誠을 象徵하는 大歡迎塔은 新京驛頭에、大歡迎門은 大同公園에 各各 建設하고 都下各戶는 日滿伊三國旗가 날리고 大同大街를 中心으로한 主要路建築物、店頭에는 使節歡迎의 아─치、提燈門을 裝飾하엿다 滿洲國政府及 歡迎各機關에서는 使節一行到着前 午後二時까지에 新京驛頭의 歡迎準備를 終了、驛構內에는 張國務總理大臣 關東軍司令官代理 于協和會代表를爲始하야 其他各團體代表者가入場 驛前廣場에는 日滿伊三國旗를가진 全市의日滿中小學校生徒及 協和會員等 無慮五萬人이整列、特別列車가到着하자、軍樂隊가 行進曲을 奏樂、다음 伊太利國歌及 파시스트黨歌를奏樂하엿다 파團長은 張國務總理、關東軍司令官代理와 人事한 後 樂隊行進曲奏樂裡에 一行은 곳自動車로 宮에 到着 야마도호텔에

朝鮮을떠나면서

파團長멧세에지發表

【平壤電話同盟】大歡迎裡에 歷史的國際記錄을 印하고 二十四日午後四時二十八分 京城驛發列車로 一路滿洲로 向한 伊太利使節團團長파우롯치氏는 朝鮮을 떠나는 車中에서 如左한멧세지를 저等 全半島官民에·發하야滯在中의 感激을 傳하엿다

파團長멧세에지

我等伊太利파시스트訪日使節團團員一同은只今朝鮮半島를떠나는 車中에서 感激에찬 熱淚가 흘러나올뿐이다 어떠感激은 如何한 말로써 全京城市民과 全半島人士에게 傳할지 發見키困難하다 우리를 一心으로 迎하야준 저사랑스러운兒童들은 日本內地에서 接한兒童의 姿態와조금도 다름이업다 우리들이 訪問한 記憶은 반드시 半島小國民의 가슴에 永遠히 아름답게남으리라고나는 信한다 內鮮人何等의 隔意가업시 渾然하야 此國家的 愛情을 우리에게 보내주엇음은 우리 日本內地에서 어든印象을 一層깁게해주엇다 同時에 全半島民이 擧皆感激한 同時에 日本帝國의 偉大한 發展에 感銘一層 기픈바가 잇다 이제朝鮮의 地를떠남에 臨하야 다시 全半島民諸氏에 深甚한 感謝의 意를表하는바이다

南總督에 謝電

伊太利 使節團一行은 二十五日未明 無事滿洲國에 入하엿는데 一行이 安東通過에際하야 파團長은 南總督에게 左記謝電을發하엿다

本使節團一行의 京城滯在中은 懇篤한 御歡待를 주시고 또 諸行事를 行하엿는것은 本使節團의 愉快한記念으로써 永遠히 忘却치못할 快事이다 玆에 我等에게 주신 誠에넘치는 御歡迎에 對하야 本使節은 閣下에 對하야 다시 衷心으로 感謝의 意를表함 그리고 半島의 官民이 我等에게 表示한 親善的態度에 對하야 我等이 느낀感謝의念을 閣下로부터 各關係方面에 御傳達하기를 切望한다

英佛會談 一日을繰上

【倫敦二十四日發同盟】英佛會談은 달라디에首相 본네外相等佛國側代表의 倫敦到着을 기다려 來二十八、九兩日에 開催할豫定이엇든바 二十七日부터 開催 日程을 하로앞당기 하야 二十九日까지 三日間에 亘하야 討議를하기로되엿다

國共龜裂暴露化!

【上海二十五日發同盟】蔣介石의 國民黨總裁就任、國民黨의 最高指導者再確認等 全國代表大會에서 國民黨이 取하는 獨裁的態度는 그目標를 全혀 共産黨에 置하야 國共間의 龜裂은 어데深刻하게 된것을 暴露하고 大會 그自體는 抗日統一戰線의 題目下에 表面的으로 糊塗하고 잇슴에 不拘하고 後日을 經함에 따라 各種各樣의 形式으로써 露出되고 엇다 國共間의 分裂抗爭은 微妙 複雜한 政治的 展開를 伴하야 表面化하야 온것이다 即 重慶에 잇서서의 共産黨書籍의 沒收는 國民黨의 對共産黨 쿠·데타로보 여고 잇는때 마침 中國共産黨中央執行委員 張國燾의 黨籍問題는 俄然 國共間의 衝突을 惹起할形勢가 되어 보이고잇다 元來 主義、主張政策政治的背景等 온갓方面에서 意見을달리하는 國共兩黨을 겨우連繫케하는것은 對日抗戰의 目的에 不過하엿다 만흔 內部的 矛盾을 包藏하면서 今日까지 共同戰線을 펴고오던것을 只今와서 各種의 機關을 招來하야 介石으로하야금 그矛盾을 解決치못하는限 內部的崩壞를 招來할것으로 보이게되엿다

朝鮮特産展에對한 各方面人士의祝辭

宣傳不足한朝鮮서 展覽會意義甚大

世專校長 吳兢善氏

今番 貴社에서 朝鮮特産品展覽會와 全朝鮮物産紹介 講演大會·音樂會·舞踊大會를 開催하는데 對하야 滿腔의 贊意를 表하는 바이다 現今 朝鮮物産이 各方面으로 輸出되는 此際 各種特産物의 宣傳이 不充分하야 多大한 成果를 엇지못함을 恒常遺憾으로 生覺되든바 貴社開催의 展覽會에는 出品이 七百種에 萬餘點이라하니 그規模의 雄大함에 놀라며 이 展覽會가 充分히 宣傳의 機能을 發揮하야 朝鮮産業界에 一大貢獻이 有할줄 밋고 疑心치안는바이다 또 演藝大會에는 斯界의 權威를 網羅하야 우리의 固有한 古樂歌舞를 復興保存하야 永遠히 빗나게

效果莫大

湖西支社人 張友植氏

今番 貴社에서 朝鮮人을 爲하야 朝鮮産業界를 爲하야 特産品展覽會를 開催한 것은 産業振興의 意味로 큰效果가 잇슬것이다 特産品을 우리가 잘알게되겟고 認識을 새롭게하야 産業振興에 必要하고 重大한 役割을 할것이다 朝鮮뿐아니라 帝國國防上 産業上으로보아도 이번의 特産品展覽會는 큰意義가잇는것으로 우리는 큰感謝를 表하고 큰成功이 잇기를 바란다

記錄的價値!

徽文校長 李炳圭氏

貴社가 陽春佳節을 擇하야 全

崇高한精神!

東順德 崔楠

貴報가 朝鮮民衆의 文化啓發을 爲하야 誕生된지 紙齡六千餘號를 마지하는 今日까지 多角的貢獻이 偉大한中 特히 最近에잇서

朝鮮勞力과合谷에서 남부럽지안는 生産되는 特産品을 一般의 觀覽에 供하야 一大集成으로 記錄的 價値는勿論 特産品을 獎勵하는 意義도 참으로 큰바잇스며 今日에잇서서는 時節柄 特産品展覽會가 큰刺戟을주는 것으로 이와가티 意義深長한 展覽會를主催한 貴社의努力에 滿腔의 敬意와 感謝를 表하야 마지안는바이다

商工朝鮮建設에 貢獻莫大를確信

梨專副校長 金活蘭氏

貴社가 朝鮮産業發展을 爲하야 꾸준한努力을 하여오심은 모두 잘아는바이나 今番 貴社에서 朝鮮特産品展覽會를 開催하신다는 社告發表를보고 그時에 우리의 新計畫에 더욱 感謝의 敬意를 表하엿습니다 이와가티 朝鮮의 物産을 널리 알리고 販路를 擴張함에 貢獻이 클뿐만아니라 特産品의 品質을 實的으로 또는 量的으로 向上發展시키며 朝鮮特産品展覽會는 朝鮮産業振興에 크게 貢獻할것을 確信합니다

勇斷에敬服

培正校長 安鍾元氏

우리의 生活改善과 産業開發에 深大한 關心을 가지고 指導的 立場에서 恒常이 努力하야 振興시켜 오신 貴社에서 今般 紙齡六千號를 記念하야 朝鮮特産品展覽會를 開催하야 우리産業朝鮮을 爲한 貴社의 關心에 얼마나 큰 一助가 될는지 이에 큰뜻이 잇슴을 敬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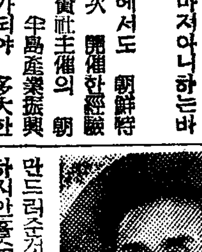
劃期的事業

中央基督靑年會總務 具滋玉氏

貴報가 每年 質로나 量으로나 發展되고 擴張됨을 心祝하는바 今般 貴報六千號를 突破하게된 記念事業中의 하나로 朝鮮特産品 展覽會를 開催하신다는바 實로 敬賀함을 마지아니하는바 업니다

好成果期待!

同德校長 趙東植氏



朝鮮의特産品을 널리紹介하고 이것을 發展식힐수잇는 機會를 만드러주는것은 意義잇는일이라고 하지안흘수업다 어떠한 사업을 막론하고 이런 事業으로 하야금 좋은成果를 가저도록 힘쓰고십다 제것에 조혼지 남은지 對해보지도안코 제집것만은 남의것이 좋은것으로 알고 잇는것이 우리의 弊端인데 이러한 잘못된생각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저보며서 徹底히 우리物産으로 하야금 發展시키는 契機가 되게하기爲하야 해마다 이러한 事業을 계속하도록 힘을모아보앗 스면한다

貴報功績偉大

東星校長 張勉氏

貴紙創刊號가 發刊되든 그때 우리半島社會에 나타내인 지 벌써十七星霜의 옛날이다 그間 幾多의 艱難을 能히克服하며 奮鬪에奮鬪를 거듭하야 꾸준히 飛躍的發展을 繼續한結果 드디어 오늘의隆盛을보게된것은 實로一大快事며 衷心으로慶賀하야마지아니하는바다

本社參觀

◆京畿道開豊郡南面南昌公立尋常小學校生徒四十名 小畑美雄氏 引率下本社見學

人事·集會

◆亞扁薛羅(梨花女專校長)再昨年十二月安息年으로 歸國中이던바 二十六日午後一時三十五分京城驛着歸任豫定

夕刊後市況 廿五日

◆各地 期米 後止◆ 大邱 釜山 群山 木浦 下關 名古

◆各地 商品 後引◆ 大阪人絹 横濱人絹 橫濱生絲

日本精神史の課題 谷川徹三

中央公論 五月號 特價一圓

議會後の政局・江古尾 謙
文壇的自叙傳・正宗白鳥
支那の新秩序を基準・橫田実
原敬・原奎一郎
梅津美治郎論・宮崎世龍

美術雜記帖・水谷淸
東京五輪大會・鷲田成男
南洋見聞錄・鈴木文史郎
羽虫のみる土俵 サトウ・ハチロー
運ちゃん物語 竹内逸

獨墺合邦なるの日 ウィン通信 淸澤洌
國家と科學・石原純
情緖の系圖・九鬼周造
事變下の豫算と物價・牧野輝智
我國の文化とイタリヤ・武藤智雄
新日本主義文學の地盤・河上徹太郎

續 三太郎 正木不如丘
底ごもり 齋藤茂吉
煙魔(詩) 湯淺半月
夕潮・鏑木淸方
發句 山口誓子 大森桐明
惜春・小杉放庵
街の人物評論

遺友 澤田信太郎 啄木散華
新重要法讀本 第七十三議會の成果 片山哲編輯

關西旅行・里見弴
履歷書・大鹿卓
石合戰・上司小劍

革新日本の志向 白鳥敏夫・中野正剛・河野密・野村吉三郎

晩春隨筆
春の藏王・中川善之助
はな・山田孝雄
北京と日本・瀧川政次郎
花三題・石川光春
相撲をきく・宮城道雄
海の春・中川一政
工業製品・宮城音五郎
選擧肅正・三宅正太郎
回々教雜聞・笠間杲雄

全體主義の政治機構・五十嵐豊作
女學生に贈る書・佐藤俊子
蚊と鬪ふ人々・安田德太郎
なぜ東洋にお節介するか・カアタアヒーリ
日本人と日本文學・杉山平助
長期戰下の貿易問題・谷口吉彦
歷史による支那の將來・高須芳次郎
木戸・大久保・山縣・渡邊幾治郎

世界新秩序への展開 大澤章・益田豊彦・下村海南・板倉進

祝 紙齡六千號 革新五周年 記念 朝鮮特產品展覽會

木浦

全南道會議員 金哲鎭 木浦府北橋洞

木浦府榮町 카페ー 萬盛會舘

木浦府本町 合資會社 遠藤期米部 電話代表番號 二三〇〇番 正米部 九一六 期米部 二六三 市場專用 一、一〇七

木浦府榮町 金後燮期米部

木浦府南橋洞 唯一館 主 鄭雲甫

木浦府廳 府尹 山本實 外職員一同

木浦釀酒株式會社 取締役社長 車南鎭 專務取締役 車南錫

木浦金曜會

木浦府溫錦洞 李同根精米所 電話九一五番

木浦府竹洞 辯護士 金聲浩

木浦府幸町 (太) 金承太商店 電話八一九番

木浦府竹洞 內科 小兒科 立命堂醫院 醫學士 崔聖東 電話一六六番

木浦府旭町一八 大倉護謨工業所 主 金明五 電話八一七番

木浦府內 農談會

木浦府龍塘里 木浦織物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千哲鎬 專務取締役 千吉鎬 工場長 千篤根

木浦府大成洞八〇 籾摺業 金明均商店 電話長六〇九番 電略カネヌヘツチ

木浦府常盤町二丁目九番地 木浦無盡株式會社

木浦穀物受檢組合 組合長 洪鍾律 理事 裴東奐

木浦海運船主組合 電話八三三番 理事長 李同根 副理事長 盧成龍 理事 崔有山

木浦府幸町 絹織物 綿絲布 商 裕豊商會 電話長六三八番

木浦榮町一ノ四 南一運輸株式會社 專務取締役 金聲振

木浦府竹洞 姜大振紙物商會

木浦府南橋洞 禹弘奎精米所

三和護謨株式會社 木浦工場長 村山一三

木浦府南橋洞 湖南醫院 院長 朴熙定

木浦府湖南町 富蘭翠病院 院長 崔燮

木浦劇場 館主 朴容淳

木浦府北橋洞 朱權泰

木浦府柳町七番地 全南水產工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金容安

木浦府南橋洞 甲種料理 掬翠舘 電話九一二番

木浦魚商組合

木浦穀物商組合 組合長 森田泰吉 理事 金文玉

木浦穀物移出商組合 組合長 森酒井 理事 金文玉

木浦商工會議所 會頭 森田泰吉 副會頭 車南鎭 副會頭 森誠一 理事 油谷保三

木浦獸肉販賣營業組合

務安郡廳 務安郡農會

木浦麴子合同株式會社

木浦券番 電話九二六番

木浦府榮町 合名會社 木浦燒酎販賣會社 支配人 金光三

木浦府南橋洞 朝鮮酒造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權寧禮

木浦府仲町 朝鮮棉花同業會

木浦府湖南町十番地 大興精米所 鄭炳祚 徐承鍾 千秉權

木浦府竹洞四九 東亞藥業株式會社 長電話一〇二九番

木浦警察署 署長 稻田壽生 外職員一同

木浦米穀取引所會員 全森田商店期米部 木浦府榮町一丁目五番地 電話 代表番號(四回線)二、〇〇〇番 取引所構內 長四〇七番 正米部 六一七番

木浦府務安通五ノ二 三共株式現物店 三共證券金融株式會社

木浦府榮町 東亞婦人會支店 支配人 鄭南龍

木浦府幸町 松本婦人科

木浦府常盤町 松島病院

木浦府務安通 南興印刷所 主 金璘順

木浦府幸町 山中醫院

木浦府福山町三番地 尹相議商店 電話八四二番

會員組織 木浦米穀取引所

木浦府竹洞 禹亨奎精米所

木浦府榮町 辯護士 李儀珩

木浦府榮町 朝鮮料理 金光園

木浦府錦町二丁目三番地 株式會社 內谷商店

木浦府錦町一丁目 (大)大竹商店清算部 電話代表番號二、一〇〇

木浦府常盤町 宮崎病院

木浦府內 各公立學校

居昌

居昌郡廳

居昌藥酒合名會社 支配人 愼重穆

北上 林有樑

居昌邑 金成昌

居昌 全相吉

居昌春秋會

愼昌緯 電話二九番

熊陽面 李太永

和信連鎖店 主 愼鏞柱 電話四五番

湖南銀行居昌支店 支配人 崔泰根

居昌邑 電話一九番

居昌金融組合 理事 馬場政夫

綢緞綿布木 鐵物雜貨 喆林商會 主 李喆永 電話六八番

居昌金融組合 理事 進藤博馬

河上醫院 電話二六番

居昌郵便所 所長 長部義忠

居昌自動車部 鄭鍾洛 電話一一番

司法書士 尹聖奉 電話六七番

加祚郵便所 徐周福

渭川面 全秉天

居昌產業組合北上支所 章大熙

洪龍善 電話四番

慶南自動車 居昌營業所 電話六番

加祚面長 鄭漢哲

熊陽酒造組合 李鉉進

加祚 卞景植

熊陽面 李鉉廷

加祚金融組合 理事 車啓鍾

惠山鎭

咸南惠山鎭本町 綢緞綿布荒物 鐵材米穀油類 建築材料商 卸 張鳳柱商店 電話 一五番 二一番 振替京城 一二九八番

惠山鎭金融組合 監事 金重鉉 盧時宗 杉山幾次郎 評議員 惠山 盧基宇 普天 金相奎 別東 金殷鏞 同仁 鄭士欽 同仁 南秉基 雲興 朴在秉 雲興 朴基瑞 雲興 許再明 雲興 岡本久雄 右新任

咸南惠山邑驛前 木材業 鑛業 金永河

惠山鎭西尋常小學校 校長 佐藤信太郎 外職員一同

惠山邑會議員 商工會交通部長 國境自動車會社代表者 三運送店代表者 金在赫

山農指導區監督事務所 山農共勵組合聯合會 會長 金在錫 理事 朴光泰

咸南惠山鎭 木材商 兄弟商會 盧時烈 盧時好 盧時宗

咸南惠山鎭驛前 醫師 張元鳳 高麗醫院 醫師 黃材旺 電話三四番

咸南惠山邑本町 共興株式會社 惠山出張所 電話五五番

咸南惠山鎭本町通 食料品雜貨商 鄭承鳳本店 電話六七番 支店 大五是川、保田里、大鎭坪

咸南惠山邑本町 木材業 鑛業 陰斗熙

咸南甲山郡大鎭坪 木材商 金吉龍

咸南惠山鎭本町通 木材商 李潛行

咸南惠山鎭 木材商 金炳熙

咸南惠山鎭 國境拓殖株式會社 常務取締役 鄭時南 電話一〇四番

咸南惠山鎭本町通 各種土木工業材料 鐵物 大成金物店 主 李文成

龍城

平元線龍城驛前 仁成醫院 院長 張載沛

龍山面自動車組合長 金雲龍

柴足面乾芝里 面協議員 李秀萬

大同郡在京里面玄岩里 面協議員 曺世煥

大同郡柴足面石三里 鄭斗杓

大同郡芹山面龍城里 朴鳳輔

大同郡柴足面石三里 金在殷

大同郡柴足面乾芝里 金鉉穀

平元線馬灘驛前 金觀祐醫院

平元西部線馬灘驛前 馬灘製綿所

大同郡在京里面玄岩里 醫生 康明恒

龍岡里興業會 會長 李夏鏞

平元西部線馬灘驛前 產婆 金松竹

平元線馬灘驛前 興生堂醫院

大同郡芹山面龍城里 許僑

大同郡芹山面西陽里 朱愚光精米所

黃州

公醫 李東熙

黃州 株式會社 至光

日新醫院 醫師 朴顯俊

成仁果樹園 金成麗

昌原釀造場

洋品雜貨 三信商會

苹果輸出 農產商會

牛島木物工場

韓箕享

黃州邑 高尾平

佐佐木峯雄

黃州邑 平安旅館 電話一二番

合名會社 黃州釀造場

朝陽醫院 電話一一三番

黃州邑內 南石治

黃州邑內 池田秀實

楠亭

遂安郡楠亭市 東光時計店 主 姜炳謨

遂安郡大千面楠亭市 朴淳楷

黃海道遂安郡楠亭 食料雜貨 朴成祚商店

遂安郡大千面楠亭里 德海寫眞館

遂安郡東谷面邱院市 綢緞布木及雜貨商 康希周

遂安郡東谷面邱院里 朴淵楷

遂安郡東谷面邱院里 金成商會 金斗奭